

중권 다이제스트



NH투자증권
연금저축고객 ETF 출시

NH투자증권은 2월 1일부터 연금저축 계좌 가입고객이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인버스, 레버리지 및 해외시장 ETF를 제외한 국내시장 ETF를 영업점,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홈페이지 및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매매 가능하다.

ETF를 투자할 때의 장점은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과 낮은 투자비용을 꼽을 수 있다. 일반펀드는 환매기간이 보통 2~3거래일, 해외펀드는 평균 8거래일 이상 소요된다. 반면 ETF는 실시간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 가능하다. /김문호 기자



신한금융투자
해외거래하고 여행 가즈아!

신한금융투자는 해외 거래 고객 대상으로 '해외여행 가즈아!' 이벤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에서 환전, 해외주식거래, 해외주식담보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생애 최초로 외화를 100만원 이상 매수하는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 환전, 해외주식, 해외주식담보대출 고객 중 매주 5명을 추첨해 20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KB증권
신규고객 할인수수료 혜택

KB증권은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해외선물 글로벌 챌린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각 국가별 주요 해외선물 물상품 안내 및 해외선물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오는 3월 31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중 해외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하고 이벤트를 신청하는 모든 고객들에게는 신청일로부터 3월 말까지 이벤트 상품 거래 시 2.99달러의 할인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4차산업혁명 ‘준비위’ 통해 선제적 대응”

권용원 금투협회장 취임 간담회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해결해야 글로벌 진출때 플랫폼 수출 고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4차산업혁명 디지털 혁신은 무시하거나 방관할 수 없다(too big to ignore)”며 “금투협이 앞장서서 고민하고, 업계와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어 변화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 시절부터 금융투자협회 기업권과 함께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발족해 관련 투자를 늘리고,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권 회장은 정부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관련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권 회장은 “정부의 국책연구개발 사업 아래 진행되는 연구개발(R&D) 지원에 금융투자업계가 빠져있다”며 “산업과 기술의 융합시대이니 만큼 지원과 관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권 회장이 밝힌 4차산업혁명 위원회의 구성안을 들여다보면 업권 간 공동 기술 개발의 역할뿐만 아니라 창의적



권용원 제4대 금투협회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인 자본시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충돌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기술적 규제 등 선진적인 환경을 제안하는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역할에 대해 그는 “인공지능(AI)의 경우는 워낙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오픈소스 등을 활용해 AI시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선두에 서기 위

해선 ‘규제 샌드박스’에 금융투자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금융업은 4차산업혁명에 큰 영향을 받지만 여전히 인프라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에 왜 금융투자업이 들어가면 안 되는 지 화두를 계속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권 회장은 정부가 요구하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두 가지가 약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규제와 세제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에는 규제와 세제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세제혜택에 관

한 일관된 방향성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규제완화, 이 두 가지를 정부에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제도 안착,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이 힘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 증권사들이 전 세계로 진출함에 있어 현지 법인 설립 외 플랫폼 수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주식거래 솔루션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이 구현된 국내 플랫폼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해외 플랫폼 수출을 통해 장기적으로 선진국 금융시스템에 국내 플랫폼이 정착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 내부 운영에 대해서는 ‘맥시멈 디테일(maximum detail)’을 약속했다.

권 회장은 “금융투자협회는 업권과 정부기관 그 중간에 위치해 있다”며 “업권의 건의를 잘 조율해 정부기관에 설득력 있는 안을 전달해야 하는 만큼 맥시멈 디테일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간자의 위치로서 누군가에게 밀려서 일을 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일하는 협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설정액 ‘14조원’ 돌파... 시중자금 ‘블랙홀’ 헤지펀드

한국형 ‘부익부빈익빈’ 현상 나타나
투자 수요 늘어 운용사도 우후죽순

헤지펀드는 14조원 규모의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며 자금 블랙홀이 됐다.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기관과 초고액자산가의 자금이 몰리고 있어서다. 그러나 트레레코드(운용성과)가 쌓이면서 한국형 헤지펀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5일 NH투자증권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한국형 헤지펀드 설정액은 13조 948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말보다 1조5000억원이 늘었다.

개별 헤지펀드 설정액은 NH엠플스 투와 ‘삼성 다빈치 1호’의 설정액이 각각 4524억원, 4046억원으로 덩치가 가

장 크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형펀드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헤지펀드가 대안 투자처를 찾는 고액 자산가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는 올해 1417억원이 이탈했다. 최근 3개월 사이에는 4조4474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헤지펀드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생 운용사도 우후죽순 등장해 헤지펀드 운용사 수는 115개까지 늘어났다.

교보증권의 독보적인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교보증권 헤지펀드 96개의 순자산 총액(설정액+운용이익)은 지난달 말 기준 1조6773억원으로 업계 1위다.

여기에 2015년 10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도입되면서 진입 문턱이 낮아진 것도 주요했다. 헤지펀드 운용 요건이

자기자본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됐고, 투자 최소금액도 1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 결과 시장에 새로 뛰어든 헤지펀드 운용사가 크게 늘고 자산가들의 투자도 증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트레레코드가 쌓이는 만큼 한국형 헤지펀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국형 헤지펀드가 퀀텀점프를 하려면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 규제 일변도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미적미적한 태도도 헤지펀드에는 아픈 부분이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부터 참여를 했지만 아직 업계가 만족할 만한 투자는 없는 게 현실이다. 국민연금 투자 방식을 참고하는 다른 연기금과 공제회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문호 기자 kmh@

<상위 20개 운용사별 헤지펀드 현황>

No	운용사	펀드수	설정액(억원)
1	교보증권	96	16,773
2	타임폴리오	10	11,439
3	미래에셋	13	5,385
4	삼성헤지	13	5,427
5	토러스증권	4	3,108
6	DS	1	4,524
7	NH투자증권	23	5,118
8	삼성자산	26	4,822
9	안다자산	15	3,761
10	피데스	9	3,876
11	라이자산	1	4,046
12	빌리언폴드	1	53
13	흥국자산	22	3,289
14	머스트	8	2,415
15	푸른파트너스	4	2,899
16	멀티에셋	3	3,082
17	브레인	15	2,556
18	플랫폼파트너스	31	2,075
19	라이노스	10	2,287
20	트리니티	22	1,955

‘서울-세종 고속도로’ 분양 후끈

이달 분양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파트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잇는 제2경부축 거점도시의 물량이다.

포스코건설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일대에 선보이는 ‘분당 더샵 파크리버’는 59~84㎡ 아파트 506가구와 84㎡ 오피스텔 165실 규모다. 부원건설도 세종 2-4생활권 HC1블록 일대에 ‘트리셰이드 리젠시’ 84~95㎡, 528가구를 선보인다.

이아파트는 동계올림픽으로 일시 개점휴업 상태인 분양시장에서 주목받는 아파트로 제2경부축 거점도시에 들어서는 것이 특징이다.

제2경부축 거점도시가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총 구간 131.6km)가 지나는 경기 구리, 하남, 성남, 용인, 평택, 안성, 세종 등이다. 특

은 서울~부산을 잇는 기존 경부축에 비해 아직은 분양가가 낮은 점이다. 이달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주목받는 물량이어서 가격 비교 우위는 낮으나 여타 물량의 경우 개통 시점에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하고 전 구간 개통 완료 시기를 기존 2026년 말에서 2024년 6월로 앞당겼다. 착공시기별로 ▲2016년 성남~구리(21.9km) ▲2017년 안성~성남(50.2km) ▲2019년 세종~안성(59.5km) 순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완공 시점이 빨라진 만큼 통행시간(129분→70분대)이 줄어들며 따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주요 거점도시 부동산은 여전히 활황이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계획 발표 시점인 2015년 11월 대비 현재까지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경기 구리시 3.85% ▲성남시 7.35%로 같은 기간 ▲경기 전체 3.08% ▲전국 2.06%보다 높다.

거점도시의 분양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경기도 평택시 모산영신도시개발사업 A3블록에서 ‘SRT 센트럴지제’ 59~

84㎡, 1603가구가 예정돼 있다. 연내 착공 계획인 GTX-A(킨텍스~동탄)노선이 SRT 노선과 연결된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컨소시엄 역시 3월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B6-C2-C3블록에 ‘하남 포웰시티’ 73~152㎡, 2603가구를 분양한다. 단지 주변으로 천마산, 금암산 등 녹지가 인접해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